



3면
"간호법 제의결 추진"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을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3년 5월 17일 수요일 (음 3월 28일) 제326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북도 · 전기안전공사 · 전북대 · 전북테크노파크

이차전지 전주기 안전성 확보 '맞손'

안전기술 지원센터 구축
밸류체인 중심 산업육성
전문가 양성 등 힘 모아

전북도(도지사 김관영),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가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평가받는 이차전지 전주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차전지란 전기차를 비롯한 스마트폰, 노트북 등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장치로 한번 쓰고 버리는 일반 건전지와 달리 충전을 통해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축전지(Storage battery)'라고도 불린다.

16일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 송철규 전북대 연구부총장, 박지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차전지 안전기술 개발·평가·인증센터를 최대 규모로 구축·운영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이차전지의 제조·조립에서부터 시스템 설계와 설치, 유지보수 및 폐기, 재활용까지 제품 전(全)주기 안전성을 도모하는 관련 산업 연구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취지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이차전지 안전기술 연구개발 및 지원센터 구축·운영, △이차전지 제품 전주기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 연구, △이차전지 밸류체인 중심 산업육성과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공사는 에너지저장기술을 활용한 핵



16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이차전지 전주기 안전기술 연구개발 지원구축 운영 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 송철규 전북대 연구부총장, 박지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차전지 안전기술 개발·평가·인증센터를 최대 규모로 구축·운영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증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김관영 도지사, 박지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송철규 전북대 연구부총장)

심기술을 공유하고 이차전지 관련 산업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센터의 구축과 운영에 일익을 보낼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이차전지의 안전성을 선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 새만금을 이차전지 산업 육성 전진기지로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도는 K-배터

리의 선구자인 선양국 한양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최고의 전문가 28명을 이차전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북 유치에 대한 범도민의 역량을 총결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전기안전공사와의 협약을 통해 이차전지 제조, 설치, 유지보수 등 전주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전북이 산업

과 안전의 균형발전을 추구할 기반을 마련,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지현 사장은 "전북도와 관계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전북이 대한민국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옥기기자

영유아에 차별없는 교육·돌봄 제공한다

도교육청,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선정 지원 격차 완화·교사 역량강화 주요 과제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교육부에서 공모한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선정된 선도교육청은 전북을 비롯해 총 9개 교육청으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유치원·어린이집 간 교육·돌봄 격차를 완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준비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이에 전북은 지원 격차 완화와 교사·학부모 역량강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하이 키우기 좋은 전북을 목표로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전북교육청 및 도청 국장급 공무원과 유아교육·보육 전문가, 유치원·어린이집·학부모 대표,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전북

유보통합추진협의회(위원장 교육국장)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업체역의 만 3~5세 어린이집 유아에게 급식비를 추가 지원한다.

이에 앞서 전북교육청과 전북도청은 지난 4월 유보통합을 대비한 선제적 대응으로 유치원 급식비 단가(3500원)와 어린이집 급·간식비 단가(2800원) 차액분을 공동 부담하는 데 합의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으로 교육·돌봄의 질을 높이고, 모든 영유아의 차별없는 교육·돌봄을 제공하겠다"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미래를 선도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전북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

도내 의료현장은 '긴장태세'

도, 도내 병·의원에 비상진료체계 가동 권고

간호사 집단행동 진행 시 진료시간 연장 등 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현 정부 들어 양쪽관리법에 이은 두번째 거부권 행사다.

이에 전북도내 의료현장이 긴장태세에 들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전국 간호사회 대표들이 서울에서 모여 추후 대책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간호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파업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집단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아직 명확히 집단행동 방식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나온 것은 없지만 도는

'연가 투쟁' 및 '집회' 등의 방식도 염두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삼강중합병원 등의 수술실 간호사들의 '수술 거부, 면허납품' 등의 최악의 상황도 고려하고 있다.

일단 전북도는 도내 병·의원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권고한 상태다.

간호사들의 집단행동이 진행될 경우 병원은 2시간 가량의 진료시간 연장 운영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 간호사의 집단행동 방식 등이 명확히 나온 것이 없는 상황이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5월 중순인데도 덥다 더워' ... 도내 곳곳 여름날씨

정읍 32.2도 등 30도 안팎, 이동성 고기압 영향 등 주원인... 오늘까지 이어져

16일 전북 곳곳이 30도 안팎의 기온을 기록하며 여름날씨를 보였다.

전주 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기온은 정읍이 32.2도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주 32도, 부안·김제 31.9

도, 남원·무주 31.7도, 고창·순창 31.6도, 완주 31.5도, 임실 31.3도, 익산 31.2도, 진안 30.3도, 군산·장수 29.7도를 기록했다.

이번 날씨의 영향은 남쪽해상에 위치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남서풍이 불어 들어왔고, 날씨가 맑아 햇빛으로 인한 지면 가열이 주된 원인으로 기상지청은 분석했다.

지난해 5월 24일과 29일 전주의 경우

각각 30.5도와 31.3도를 기록했는데 이때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과 맑은 날씨가 원인이었다.

30도를 웃도는 기온은 17일까지 이어진 뒤 18일부터는 흐려져 잠시 더위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17일 낮 최고기온도 27~31도로 16일과 비슷하겠다"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

IMSIL-GUN
임실군

천만 관광 임실시대를 열어갑니다